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의 사회적 역할 탐색: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수용자 감정반응 분석

김호경<sup>1</sup>, 권기석<sup>2\*</sup>

<sup>1</sup>한림대학교 헬스케어미디어연구소, <sup>2</sup>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 Social Roles of Child Sexual Crime Faction Films: Text Mining Analysis of Audiences' Emotional Reactions

Ho-Kyung Kim<sup>1</sup>, Ki-Seok Kwon<sup>2\*</sup>

<sup>1</sup>Healthcare Media Research Institute, Hally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ublic Policy, 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는 역부족이다.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관심을 증폭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촉구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가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 보았다. 영화 개봉 이전 네이버 블로그 총 2,727개를 분석한 결과 사건을 설명하는 사실적인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영화 개봉 이후 리뷰 코멘트 총 3,000개를 분석한 결과 감정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각 영화별로 긍정·부정형의 감정 범주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도가니>의 경우 '화나다'와 함께 '억울하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이 강한 단어 들의 빈도가 높았다. <한공주>도 부정형의 감정단어만이 등장하였지만 '슬프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부정형 강도가 다소 약한 단어들이 뒤를 이었다. <소원>에는 긍정형의 감정표현인 '좋다' 범주가 유일하게 등장하였다. 즉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위주로 인식한 반면,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였다. 동일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도가니>는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시민 참여적 움직임을 결성시켰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처리되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 고발적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상이한 감정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변화를 이끄는 팩션영화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정표현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감정표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Child sexual crimes have increased, but there has been no effective plan to combat this. Films reporting problems, amplify the attentions and propose countermeasures, which leads to chang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udiences' reactions to child sexual crime faction films using text-mining. The analysis of Naver's 2,727 blogs showed realistic words while 3,000 review comments' analysis demonstrated emotional responses.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category and degree were also different. In <Dogani>, the higher degree of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ry' and 'unpleasant' appeared frequently. In <Han Gong-ju>, only negative emotional worlds were used. On the other hand, 'sad' was the highest ranked word, and the negative level was weak. In <Sowon>, 'good' a positive emotional word solely emerged. The audiences perceived the accidents objectively before release while they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feelings after watching the movies. <Dogani> caused explosive anger and organized the participating citizens for changes. This movie provided an opportunity to enforce a legislative bill intensifying heavy punishment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scrutinizing the audiences' diverse emotional reactions and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 of society prosecution movies. Based on the text analysis of the audiences' linguistic expressions, a future study will be needed to hierarchically classify the diverse emotional expressions.

**Keywords** : Audiences' Emotional Reactions, Child Sexual Crime, Faction Film, Text Mining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5S1A3A2046760).

\*Corresponding Author : Ki-Seok Kwon(Hanbat National Univ.)

Tel: +82-42-821-1786 email: kiseok@hanbat.ac.kr

Received February 20, 2017

Revised (1st March 16, 2017, 2nd March 23, 2017)

Accepted June 9, 2017

Published June 30, 2017

## 1. 서론

블특정 다수의 여성이 성적으로 유린되고 살해된 '살인쇄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2003, 봉준호 감독)'이 개봉 당시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며 성공한 이후[1], 한국영화계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2-4].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여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속한 대응방안의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다[1,5-6]. 한국 영화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화 내용은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영화는 밝음과 희망의 대상인 10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반면, 2010년대에 제작된 영화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사회 시스템상의 모순 등을 전면에서 비판한다[7].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재현하는 영화는 참혹한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다. 국내에서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자료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8], 2011년 장애인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이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 건수가 폭등하였다. 경찰청이 집계한 2008년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건수는 228건이지만, 2012년 656건으로 5년 새 3.3배 증가하였다[9]. 이와 같이 영화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더 나아가 관객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0].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를 대상으로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영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영화의 구도기법을 중심으로 시각적 연출의 특성을 분석하거나[11],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통해 젠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12], 영화의 프레임과 재현방식을 분석하며[5],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13], 영화에서 재현된 성범죄사건을 분석하여 발생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14]. 즉 영화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의 의

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상매체인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영화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영화의 다양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화의 흥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객의 반응을 분석하거나[15], 영화 댓글을 분석하고[16], 영화제 개최 전·후를 비교하며[17], 영화 흥행성을 예측하는 연구[18]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 및 해외의 흥행 영화를 중심으로, 네티즌의 리뷰 코멘트에 사용된 감정 동사를 분석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접근도 시도되었다[19]. 그러나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다양한 영화에 대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관객의 반응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영화가 우리사회에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는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에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안이 제언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픽션영화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영화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영화산업에서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픽션영화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도출

### 2.1 영상의제설정 관련 선행연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켰으나, 여전히 개인의 제한된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직접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0].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각적(perceptual)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맥콤과 쇼[21]가 주

장한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미디어가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이슈를 선별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중의 인식(*perception*)을 형성하는 인지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즉 미디어가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보도하는 의제(*media agenda*)가 대중과 사회를 이끄는 공공의제(*public agenda*)로써 작용하고, 미디어의 의제는 대중이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what to think about*)’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의제설정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의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의제가 선정·과급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의제설정(*visual agenda-setting*)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 환경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시각적인 정보인 영상과 자막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는 동일내용이 영상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특정 이슈를 주요 의제(*key agenda*)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20].

본 연구는 다양한 대중매체 중 영화의 영상의제설정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혁명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정치가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영화를 강력한 교육 수단으로 인식하며, 모든 예술 장르 중 영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교하였다[23-24]. 이에 반해, 공적(*public*) 영역의 내용을 담은 영화들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 소외 계층(*minority*)의 피해, 권력자들의 비리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대중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한다[25]. 이러한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는 수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3]. 최근 영화계에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픽션 영화 제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픽션영화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2 픽션영화의 개념 및 사회적 파급효과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은 바탕이 되는 내용의 사실(*fact*) 근거 여부에 따라 픽션(*fiction*)형태와 논픽션

(*non-fiction*)형태로 구분된다[26]. 픽션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적인(*imaginary*)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논픽션은 사실적인(*realistic*)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7]. 이러한 기준에서 팩션(*faction*)은 픽션과 논픽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팩션은 사실(*fact*)과 허구(*fic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 사건, 실존 인물 등 실제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덧붙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 장르이다[28].

팩션영화는 실제 장소, 인물, 사건 등 사실적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심도 있게 작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보를 좀 더 찾아보도록 고무시킨다[29].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팩션영화는 이제 성공적인 흥행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2]. 경쟁적인 영화산업에서 팩션영화는 영화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실제 범죄사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팩션영화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영화의 이야기 소재가 현실에서 있어날 수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한국영화 최대 흥행작인 살인의 추억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여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차례로 살해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1]. 영화 개봉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년이라는 기간이 채 남지 않아 범인 검거에 관심이 촉발되었으나 끝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 반인륜적 범죄와 흉악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및 폐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13].

영상매체인 영화는 텍스트 및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특정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킨다[10]. 특히 실제 발생한 사건을 재현한 픽션영화는 관심 영역 밖에 놓여있던 과거의 사건을 주요 이슈로 회자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수동적인 관람객에서 문제의 갈등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룬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참여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6, 30]. 이렇듯 영화가 개봉되기 전과 후를 기점으로 수용자 반응에 있어 변화

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재현한 픽션영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가설 1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픽션영화의 개봉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수용자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

선정성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픽션영화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각 영화들 간에 노출, 성행위, 폭력, 소리, 언어 유목에서 빈도와 시간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31]. 영화의 표현기법과 구도, 시점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방식은 영화에 대한 상이한 수용자 반응을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2]. 특히, 영상매체 중에서도 영화는 관객의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ons)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탁월하다[33]. 이러한 관점에서 탠[34]은 영화를 감정적인 기계(emotion machine)로 명명하며 영화를 통해 수용자는 다양한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감정적 자극제인 영화를 제작하는 연출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르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반응, 즉 만족도(desire), 기대감(expectation), 감정(emotion)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화 장면을 연출한다[35]. 극적인 영화 장면은 관객이 감정적으로 영화 내용에 공감(empathy)을 느끼도록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6].

상이하게 표현된 영화에 대해 관객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봉된 한국 및 해외 흥행 영화 각 25편에 대해 네티즌의 영화 리뷰를 분석한 결과, 영화에 대한 구분과 관계없이 ‘재미있다’는 감정 동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19].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 재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 재미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감정적 몰입이나 감동 등 감정적 충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단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였다[19]. 즉 외국 영화와 달리 한국 영화에서는 재미만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감동적이거나 몰입이 영화가 흥행하는 데 결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점과 결부지어, 실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픽션영화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재현한 픽션영

화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장르의 영화보다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발생과 해결 과정에 대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12-13,37-38]. 영화에서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표현기법이나 구도, 시점 등으로 상이하게 재현되기 때문에[5,11,32]이를 바라보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화를 관람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에 초점을 두고 다음의 가설 2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픽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연구대상의 선정

최근 5년간(2011-20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로 도가니 (2011, 황동혁 감독), 돈 크라이 마미 (2011, 김용한 감독), 공정사회 (2011, 이지승 감독), 들개들 (2013, 하원준 감독), 방황하는 칼날 (2013, 이정호 감독), 소원 (2013, 이준익 감독), 한공주 (2014, 이수진 감독) 등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가니, 소원, 한공주 세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기준으로, 세 영화가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사건이 모티브가 되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도가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인화학교(청각 장애인 특수학교)와 인화원(청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관계자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연관이 있다[39]. 소원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이미 동종 전과기록이 있는 조두순이 등교중인 당시 8세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을[40], 한공주는 200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울산의 한 여중생이 밀양에 거주하는 남자 고등학생 44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당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41-42].

연구대상 선정의 두 번째 기준으로, 세 영화 모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의 전개과정을 재현하며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점을 강조한다[12-13,37-38]. 즉 성범죄 자체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영화는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하여 사건의 본질을 다룬다.

세 번째 선정기준으로,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의 실제 판결 결과도 고려되었다. 도가니, 소원, 한공주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아동 성폭행, 집단 성폭행과 같이 성범죄사건의 범죄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 개의 사건 모두 처벌 수위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대두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성폭력사건에 대해 일제히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 구형되어 양형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가니, 소원, 한공주를 중심으로 영화의 개봉 전과 후의 수용자 반응을 비교하고, 특히 수용자의 감정반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영화 개봉 이후 수용자의 반응은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 파악하여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 영화 개봉 전후 수용자 반응 분석

#### 3.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가설 1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픽션영화의 개봉 전과 영화 상영 이후 수용자 반응의 변화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영화 개봉 전 실제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은 각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의 신고 접수 당일 부터 재판 판결 완료일까지로 설정하였다. 표 1과 같이 분석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각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건명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추출되는 내용을 전수 조사하였다.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한공주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예,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275건],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127건], 밀양성폭행[356건], 밀양성폭력[141건], 밀양여중생[199건], 여중생 집단성폭력[34건], 밀양 집단성폭행[219건], 창원여중생성폭행[12건], 울산여중생 집단성폭행[57건], 울산여중생 집단성폭력[27건])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블로그 게시글 총 1,447건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도가니와 연관 있는 사건의 유의어(예, 광주인화학교 교사건[109건], 광주인화학교[241건], 광주장애인 성폭력[177건], 광주장애인 성폭행[86건], 인화학교 장애인

[137건],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106건],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행[24건],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41건], 인화학교 성폭행[43건], 인화학교 성폭력[36건],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72건])로 검색되는 블로그 게시글 총 1,101건을 수집하였다. 소원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의 유의어(예, 조두순 사건[23건], 조두순 아동성폭력[2건], 조두순 아동성폭행[1건], 나영이 사건[138건], 나영이 성폭행[8건], 나영이 성폭력[7건])로 검색되는 블로그 게시글 총 179건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Krkwic을 활용하여 텍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ata Collection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Case Before the Release of Each Movie

Movies	Cases	Collecting Period	No. of Blogs
Han Gong-ju	Group Sexual Assault in Miryang	2004.01.01-2005.04.30	1,447
Dogani	Inhwa School	2005.06.22-2007.10.10	1,101
Sowon	Na-Young Case	2008.12.11-2009.09.24	179

다음으로 영화 개봉 이후의 수용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각 영화의 개봉일로부터 영화 개봉 이후 6개월까지 영화정보 사이트 왓차(Watcha)에 게시된 각 영화의 네티즌 리뷰 코멘트를 개봉 이후 날짜순으로 1,000개를 각각 수집하여 텍스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화된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차사이트는 2015년 12월 21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72만 명이고, 2억 3000만 건에 이르는 영화 평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43]. 이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영화 평가 데이터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격차는 계속 커지는 추세이다[44]. 왓차의 회원은 영화를 평가할 수록 사이트로부터 본인 취향에 맞는 영화를 더 많이 추천 받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다. 왓차사이트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영화에 대해 적게 평가하더라도 개인의 영화 취향이 충분히 반영된 영화 추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45],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다. 왓차사이트에는 각 영화별로 적게는 몇 만개, 많게는 몇 십만 개의 영화 관련 감상 코멘트가 존재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3].

**Table 2.** Data Collection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Movie After the Release

Movies	Release Date	Collecting Period	No. of Reviews
Dogani	2011.09.22	2011.09.22-2012.03.21	1,000
Sowon	2013.10.02	2013.10.02-2014.04.01	1,000
Han Gong-ju	2014.04.17	2014.04.17-2014.10.16	1,000

### 3.2 수용자 반응 분석 결과

표 3은 영화 개봉 이전 실제사건과 관련하여 네티즌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사건별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단어와 빈도수를 파악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상위에 등장하고 있다. 각각의 실제사건에 대해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인 사건명, 범죄명, 범죄자, 사건발생 지역과 장소, 피해자, 피해범위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즉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 위주로 수용자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Case through the Blogs

Gwangju Inwha School (Dogani)		Na-young Case (Sowon)		Group Sexual Assault in Miryang (Han Gong-ju)	
Keyword	Freq.	Keyword	Freq.	Keyword	Freq.
Inwha School	172	Child	233	Miryang	128
Sexual Violence	155	Cho Doo Soon	198	Sexual Assault	114
Children	152	Sex Crime	156	Group	78
NHRC	141	Law	121	Middle-School Girl	62
Hearing-impaired	93	Damage	117	Victim	52
Principal	72	Sexual Violence	103	Assailant	47
Special School	58	Na-Young	101	Internet	38
Social Welfare Foundation	53	Press	92	Rape	33
Sign Language	46	Anus	75	Threat	25
Planning Com	43	Prevention	52	41 People	8

표 4는 영화 리뷰 사이트인 왓차에 수용자가 남긴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이다.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수용자의 반응

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영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상위에 언급되어 있다. 즉 영화가 개봉된 이후,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Audiences' Reactions to Each Movie through the Watcha Site

Dogani		Sowon		Han Gong-ju	
Keyword	Freq.	Keyword	Freq.	Keyword	Freq.
분노	192	눈물	207	미안하다	55
화가난다	116	아프다	119	아프다	51
불편한	73	슬프다	98	불편한	49
슬프다	39	울었다	83	슬프다	44
더럽다	36	따뜻한	51	분노	39
빡치는	32	감동적인	46	잔인한	39
치밀어오르는	29	화가난다	43	화가난다	38
안타깝다	27	분노	39	먹먹하다	34
찢찢한	26	안타깝다	36	무섭다	27
무섭다	24	좋다	31	답답한	24
억울한	24	아름다운	9	안타깝다	20
아프다	22	빡치는	6	힘들다	20
싫다	21	비통하다	6	열받는	18
답답한	20	재미있다	5	가혹한	17
힘들다	19	불쌍한	4	눈물	16
참혹한	15	먹먹하다	2	소름끼친다	15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사건이 발생하고 완료되기까지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과 영화 개봉 이후 네티즌의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 반응간의 차이를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영화 개봉 이전에는 실제사건 자체와 관련하여 이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객관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와 달리, 영화 개봉 이후에는 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 현실에서 발생된 잔인한 실제 사건에 대해 수용자가 격양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영화 개봉 전·후를 비교할 때 수용자 반응에 차이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 4. 영화 개봉 후 수용자 감정반응 분석

### 4.1 감정표현 어휘 분석을 위한 분류

가설 2는 분석대상인 세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간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는 위계적인 범주화

(categorization)가 가능하다[45-46]. 이영희와 정재욱(2004)[47]은 감정표현의 어휘를 언어적(형용사, 동사,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관용어) 또는 비언어적 표현(얼굴표정, 목소리 억양, 몸짓과 자세)으로 분류하여 유사도(similarity)를 측정하여 총 209개의 감정 표현 어휘를 39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25개의 대표어휘를 추출하였다.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리뷰 코멘트에 사용된 감정 단어를 분석한 연구[19]에서도 동일 분류표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표를 바탕으로, 전 단계에서 추출한 영화 개봉 이후 왓차에 올린 각 영화의 네티즌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표 5와 같이 감정 어휘 분석표를 재분류하였다.

**Table 5.** Categories of Korean Words Expressing Emotions

Emotion	Representative Words	Words expressing emotions
Negative	Stuffy	답답하다, 착잡하다, 갑갑하다, 막막하다, 거북하다, 답답하다,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Unpleasant	억울하다, 개떡같다, 분하다, 제수없다, 원통하다, 징그럽다, 인짤다, 불만스럽다, 역겹다, 더럽다, 껌하다, 한탄스럽다, 불쾌하다, 불편하다
	Sad	슬프다, 침울하다, 애뜻하다, 처량하다, 애절하다, 힘겹다, 막하다, 외롭다, 공허하다, 황량하다, 산란하다, 쓸쓸하다, 스산하다, 울적하다, 싸하다, 심란하다, 고독하다, 우울하다, 암울하다, 적적하다, 눈물겹다, 비참하다, 서럽다, 애달프다, 서글프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구슬프다
	Uncomfortable	찜찜하다, 마땅찮다, 달갑지 않다, 석연찮다, 한심하다, 깨물칙하다, 찜찜하다, 떨떠름하다, 어색하다, 짜증나다, 의심나다, 배아파하다
	Shameful	부끄럽다, 낮뜨겁다,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 썩스럽다, 민망하다, 창피하다, 망측하다, 모욕되다
	Pathetic	불쌍하다, 걱정스럽다, 애처롭다, 염려스럽다, 측은하다, 유감스럽다, 안쓰럽다, 안타깝다, 근심스럽다, 안되다, 가엾다, 애타다, 섬뜩하다, 살벌하다, 무섭다, 두렵다, 주눅타다
	Hate	싫다
	Painful	아프다, 시리다, 뼈아프다, 쓰리다, 고통스럽다, 아리다, 괴롭다, 멍들다
	Sorry	미안하다, 미숙하다, 멧쩍다, 겸연쩍다, 무안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Awful	끔찍하다, 질통하다, 참혹하다, 무참하다, 참담하다, 처참하다, 처절하다
Angry	화나다, 감정나다, 애통터지다, 격분되다, 성나다, 노엽다, 역성나다, 분통터진다	
Positive	Good	좋다, 흥겹다,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 반갑다, 자유롭다, 뿌듯하다, 흐뭇하다, 훌륭하다, 고맙다, 흔쾌하다, 유쾌하다, 개운하다, 후련하다, 시원하다, 양호하다, 상쾌하다, 편안하다, 쾌적하다, 짜릿하다, 감동적이다, 몽클하다, 짱하다, 신나다, 자랑스럽다, 설레다, 매료되다, 매혹되다, 달아오르다, 우쭐하다

**4.2 감정표현 단어 분류 및 빈도수 측정결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왓차의 영화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표 5의 감정표현 어휘 분석표에 따라 ‘대표어’ 범주의 속성에 부합하는 단어들로 재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된 단어들이 긍정·부정형 감정표현 범주에 따라 실제 표현된 빈도와 비율을 측정하였다. 먼저, 도가니의 경우, 표 6과 같이 부정형의 감정표현 어휘만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정반응에서 ‘화나다’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369회(57.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억울하다’ 범주가 133회(20.9%)로 뒤를 잇고, 차례로 ‘슬프다’ 58회(9.1%), ‘불쌍하다’ 51회(8.1%), ‘찜찜하다’ 26회(4.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Audiences’ Emotions to Dogani

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Angry	분노, 화가난다, 뽀치는, 치밀어오르는	369	57.9
Unpleasant	불편한, 더럽다, 억울한	133	20.9
Sad	슬프다, 힘들다	58	9.1
Pathetic	안타깝다, 무섭다	51	8.1
Uncomfortable	찜찜한	26	4.0

표 7은 소원에 대한 리뷰 코멘트의 텍스트 분석결과를 감정 어휘 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이다. 소원의 경우 ‘슬프다’ 범주의 단어들이 396회(50.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긍정형 감정범주에 해당하는 ‘좋다’ 범주의 단어들이 142회(1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프다’ 119회(15.2%), ‘화나다’ 88회(11.2%), ‘불쌍하다’ 40회(5.1%)의 순으로 감정반응이 이루어졌다.

**Table 7.** Analysis Results of Audiences’ Emotions to Sowon

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Sad	눈물, 슬프다, 울었다, 비통하다, 먹먹하다	396	50.4
Good	따뜻한, 감동적인, 좋다, 아름다운, 재미있다	142	18.1
Painful	아프다	119	15.2
Angry	화가난다, 분노, 뽀치는	88	11.2
Pathetic	안타깝다, 불쌍한	40	5.1

표 8은 한공주에 대한 리뷰의 텍스트 분석결과를 분

석표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도가니와 마찬가지로 부정형의 감정표현만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먼저 ‘슬프다’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인 114회(31.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화나다’ 범주의 단어들인 77회(21.2%)로 뒤를 잇고, ‘불쌍하다’, ‘끔찍하다’, ‘미안하다’ 범주의 단어들인 각각 62회(17.0%), 56회(15.4%), 55회(15.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Table 8.** Analysis Result of Audiences’ Emotions to Han Gong-ju

Rep. Words	Expressed Words	Freq.	Ratio(%)
Sad	슬프다, 먹먹하다, 힘들다, 눈물	114	31.3
Angry	분노, 화가난다, 열받는다	77	21.2
Pathetic	무섭다, 안타깝다, 소름끼친다	62	17.0
Awful	잔인한, 가혹한	56	15.4
Sorry	미안하다	55	15.1

분석대상인 세 영화의 리뷰 코멘트에 대한 텍스트 분석결과를 감정어휘 분석표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반응에 있어 긍정형 범주와 부정형 범주의 단어의 빈도수와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고, 주로 등장하는 감정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팩션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 표현은 긍정·부정형의 감정 범주와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에 가설 2는 지지되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사건을 영화로 재현한 도가니, 소원, 그리고 한공주 사례를 중심으로 영화 개봉 전과 후를 비교하고, 특히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비교하였다.

우선, 각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완료될 때까지 주로 언급된 단어를 살펴보았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나타난 수용자의 반응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관련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완결되기까지 수용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사건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요 의제가 설정·과급되었고, 이는 수용자가 관련 사건을 이해하는 인식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영화가 개봉된 이후 네티즌의 영화 리뷰 코멘트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는 현실에서 참혹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범죄사건이 철저히 미연에 예방되어져야하지만, 특히 최고 약자 대상인, 우리사회가 꼭 지켜내야만 했던 아동·청소년들이 영화에서 끔찍한 성폭력 범죄의 실제 피해자로 재현되고, 사건 해결과정에서도 사회 시스템이 가지는 모순이 영화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를 접하게 된 수용자는 감정적으로 사건에 대해 반응하게 되었다. 수용자가 생각해왔던 사회정의와 영화를 통해 재현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정의의 모습이 크게 달랐던 것이다. 영화를 관람한 수용자에게 있어 더 이상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범죄사건명은 무엇인지’, ‘주요 관련 부서는 어디인지’, ‘몇 명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는지’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단계에서 사건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여적 담론이 형성되도록 영화가 사회적 역할을 한 것이다.

시청각적이고 극적인 재현된 영화장면들은 수용자로 하여금 특징적인 감정 반응이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용한다. 감정적 자극제인 영화를 활용하여 영화 연출자는 영화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반응을 의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장면을 구성한다[33-36]. 이러한 이유로, 세 영화 모두에서 수용자 반응에 공통적으로 ‘화나다’ ‘슬프다’, 그리고 ‘불쌍하다’는 감정표현이 등장하였다. 도가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다루고, 소원은 아동 성폭행, 한공주는 집단 성폭행을 다루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영화 소재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 영화 모두에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져야하는 대상은 무자비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재현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를 다양한 표현기법과 구도, 시점 등을 활용하여 영화에 재현함에 따라 관객인 수용자는 화가 나게 되고, 피해자가 불쌍하며, 이 사건 자체가 슬픈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주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은 아동성폭력 피해자



가 당한 현실에 대해 담담하게 그려내며 자극적 표현은 배제하였다[31]. ‘한공주’ 또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피해자의 시선을 따라 사건을 담담히 재현하며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였다[42]. 이와 비교하여 다른 두 영화에 비해 좀 더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연출 장면이 많은 도가니[13]의 충격적인 내용에 수용자는 울분하며 좀 더 강한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극적인 반응은 영화 개봉 이후 영화를 관람한 수동적 관객에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집단적인 시민 참여운동인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독려했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가니법’이 시행되도록 계기를 마련하였다[6]. 영화를 통해 사건을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수용자는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며 사안에 대해 중대하게 느끼게 된다. 영화 한편이 문화콘텐츠 소비자를 실천적인 행동을 이끄는 시민 참여자로서 전이되도록 수용자를 고무시킨 것이다. 즉, 감정을 촉발시키는 매개체로써 작동하는 영화는 극적표현에 고무된 수용자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당시 도가니가 공지영의 원작소설보다 훨씬 크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들이 기사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다[5].

연도별·범죄유형별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8].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특히 서구에 비해 국내 성범죄에서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실행비율이 낮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49].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티브로 제작하는 팩션영화가 수용자로부터 특정적인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행동하는 사회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어떠한 영화적 표현기법이나 구도, 시점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출한 장면들이 수용자에게 감정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도출시키는지

계량적으로 탐구해 보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이를 발전시켜 건설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재현물이 좀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매스미디어의 강효과를 지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조지 거브너가 주장하는 문화배양 효과이론(The Cultivation Theory)은 영상매체인 TV프로그램의 폭력물이 수용자의 지각과 태도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강조한다[50].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폭력적인 범죄(violent crime)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실제로는 범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이 증강되어 범죄사건이 범국가적으로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51]. 이러한 주장과 함께 현대사회의 수용자는 폭력 영상물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둔감(desensitization)하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2].

또한,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장면에 대해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5]. 향후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화를 활용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찰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흥행영화의 리뷰에 사용되는 감정 동사를 분석한 연구[19]에서도 제언했듯이, 본 연구에서도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수용자의 언어적 표현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영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도 부정적인 감정표현이 긍정적인 감정표현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위계적인 구성 및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어진다면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E. K. Bae., "Serial Murders and Movies: The Social Enjoyment of Women's Fear and Anxiety",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88, 115-148, 2010.
- [2] K. S. Kim., & J. H. Jung., "Analysis Study on Successful Hit Elements of Faction Film, Gwang-hae: The Man Who Became K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6), 179-190,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179>

- [3] M. S. Kim., H. S. Han., & G. Kim., "Study on the Media Phenomenon and Social & Political Discourse in 2000s Korean Public Movie", *Catoon & Animation Studies*, 42, 125-150, 2016.  
DOI: <https://doi.org/10.7230/KOSCAS.2016.42.125>
- [4] D. H. Han., "Faction Contents' Practical Study for Korea Film Production's Varie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2), 193-202, 2009.  
DOI: <https://doi.org/10.5392/JKCA.2009.9.2.193>
- [5] J. S. Kang., "A thought on the Effect of Movies on Real Cases: <Silenced> and <2 Doors>", *Cultural Sciences*, 71, 179-207, 2012.
- [6] W. G. Ghe., "Representation Strategy for Participatory Spectatorship in Sil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85-92,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9.085>
- [7] M. Jeong., "A Study on the Genre Structure and Sociality of Korean Teen Films in 2010s",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Studies*, 49, 595-635, 2015.
- [8] J. G. Jo., & S. H. Jung.,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upporting Sex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4), 335-357, 2015.
- [9] Y. J. Jung., "A 20s Sexual Abuse of a feeble-minded girl after online dating", *Munhwa Ilbo*, 2013.2.20.
- [10] G. D. Cho., & H. W. Cho., "A Study on Bullying in Movies and the Role of Correctional Welfare: Focusing on movie *Elegant Lie*",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34, 225-252, 2014.
- [11] B. T., Ahn., "Analysis of Visual Characteristic of Directing For Dramatic Narrative: Focusing on Composition Technique of <SIL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9), 68-7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9.068>
- [12] S. W. Jung., & Y. I. Ahn., "A Study on Gender Biased Perception of Han Gong-ju", *Contemporary Film Research*, 22, 359-386, 2015.
- [13] S. J. Bae., "<Silenced(2011)> and <Unbowed (2012)>", *FILM STUDIES*, 55, 227-262, 2013.
- [14] D. H. Lee., & Y. J. Im., "The causes of sexual offenses consistently target women with disabilities: A analysis through the Film <Silenced>",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5(2), 75-100, 2015.
- [15] O. J. Lee., S. B. Park., D. Chung., & E. S. You., "Movie Box-office Analysis using Social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527-538,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527>
- [16] Y. M. Hwang., J. T. Park., I. Y. Moon., K. S. Kim., & O. Y. Kwon., "The Box-office Success Factors of Films Utilizing Big Data-Focus on Laugh and Tear of Film Factors",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20(6), 1087-1095, 2016.  
DOI: <https://doi.org/10.6109/jkiice.2016.20.6.1087>
- [17] J. S. Han., & J. H. Yoon., "Activation Strategies of the 20th BIFF using Social Big Data Text Mining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0(1), 133-145, 2016.  
DOI: <https://doi.org/10.17086/JTS.2015.39.10.133.145>
- [18] Y. Jin., J. Kim., & J. Kim., "Product Community Analysis Using Opinion Mining and Network Analysis: Movie Performance Prediction Case",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0(1), 49-65, 2014.
- [19] J. Y. Park., & B. S. Chon.,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Movie Review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5), 85-94,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5.085>
- [20] D. C. Park., "Visual Agenda-Setting Effect of Television News: Mainly on Environmental New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 72-82,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1.072>
- [21] McCombs, M. E., & Shaw, D. L.,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1972.  
DOI: <https://doi.org/10.1086/267990>
- [22] H. K. Kim., K. S. Kwon., & S. H. Seo., "Characteristics of Entertainment Program Subtitles and Effects on the Audience's Perception: Text Analysis of JTBC <Abnormal Summ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3), 232-246,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3.232>
- [23] Bordwell, D., & Thompson, K., *Film art: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Edi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3.
- [24] Taylor, R., *Film Propaganda: Soviet Russia and Nazi Germany*. IB Tauris, 1998.
- [25] W. G. Ghe., "Prostitution and Social Power in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 <Unni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241-249,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4.241>
- [26] H. K. Jeong., "Überlegungen zum Merkmal und Status des fiktionalen Textes",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Germanistik*, 43(1), 271-290, 2002.
- [27] H. B. Shim., "A Study of the Role of a Teacher's Questioning During the Picture Book Reading Process: Focus on Fiction and Nonfictio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5(2), 1-28, 2014.
- [28] H. J. Hwang., "Director Jin Pyo Park's <Voice Of A Murder>: Disharmony between Faction Films and Facts", *Performing Arts & Film Review*, 56, 216-222, 2007.
- [29] B. S. Choi.,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y Film Viewers' Evaluation: Written History <Roaring Currents, 2014> vs. Unwritten History <Gundo : Age of the Rampant, 2014>",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525-536,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2.525>
- [30] Y. J. Hong., & J. S. Hwang., "Social Media vs. Mass Media in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The Case of the Gwangju Inhwa School Incident<Dogani>",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6(1), 115-151, 2015.
- [31] H. K. Kim., H. Kang., & S. Kim., *Com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Faction Movies on Child Sexual Abuse: Language Network Analysis of Dogani, Sowon, and Han Gong-Ju*, Proceedings of Korea Healt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54-65, 2016.
- [32] K. S. Lee., "A Study on Expression Method of Suspense in Restricted Space: Focused on Movies <Buried> and

- <127 Hou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6), 103-113,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6.103>
- [33] Grodal, T., *Moving pictures: A new theory of film genres, feelings, and cognition*, Clarendon Press, 1999.  
DOI: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8159834.001.0001>
- [34] Tan, E. S., *Emotion and the structure of narrative film: Film as an emotion machine*, Routledge, 2013.
- [35] M. J. Kim., & J. H. Kim., “User’s Emotion Modeling on Dynamic Narrative Structure: towards of Film and Gam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1), 103-111,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1.103>
- [36] Davis, M. H., Jay, G. H., Young, R. D., & Warren, G. G., “Emotional reactions to dramatic film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26-133,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1.126>
- [37] K. A. Kim., “Our Twisted Self-portrait: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Hang Gong-ju> by Lee, Su-Ji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13(3), 69-85, 2015.
- [38] J. C. Moon., “<Han Gong-ju>: Han Gong-ju: eye, shame, and ethics”, *Contemporary Film Research*, 20, 155-171, 2015.
- [39] J. S. Hwang., “Rethinking the so-called “Dogani Law” as an Incomplete Project”, *female theory*, 26, 266-276, 2012.
- [40] C. W. Pyo., “A search for measures of Criminal Justice to prevent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1(2), 9-31, 2009.
- [41] I. Ryu., “Another Miryang Group Sexual Assault Case... Court “No Mercy Even Agreement”, *Kyunghyang Shinmun*, 2014.4.30.
- [42] S. J. Lee., “Consideration for Problems of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Suit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he Yonsei Law Review*, 18(1), 295-314, 2008.
- [43] H. M. Lee., “Watchya, A Promising Korean Monthly-fee VOD Based on Massive Review Comments”, *Herald Economy*, 2016.2.18.
- [44] T. H. Park., & C. Lee., “Watchya, a personalized movie recommendation service by Programs”, *Journal of KIISE*, 32(7), 60-62, 2014.
- [45] J. W. Rhee., H. J. Song., E. K. Na., & H. S. Kim., “Classification of Emotion Ter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1), 85-116, 2008.
- [46] Shaver, J., Schwartz, D., Kirson, D., & O’Conner, C.,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1086,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6.1061>
- [47] Y. H. Lee., & J. W. Jeo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Emotion-expressing Vocabulary for Realtime Conversion of Avatar’s Countenances”, *Journal of Design*, 17(2), 199-208, 2004.
- [48] D. K. Yoon., M. Lee., M. H. Chang., J. S. Joo., & H. J. Song., *Analysis of Sex Crime Trends Against Children and the Youth in 2015: With Focus on Sex Offenders Registered in 201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5.
- [49] H. U. Choung., “Status of Child Sexual Abuse Related Legislation and Challenges”, *Legal Theory and Practice*, 3(2), 143-169, 2015.
- [50] Gerbner, G., & Gross, L.,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9, 1976.  
DOI: <https://doi.org/10.1111/j.1460-2466.1976.tb01397.x>
- [51]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2003.  
DOI: <https://doi.org/10.1111/j.1460-2466.2003.tb03007.x>
- [52] H. J. Woo., & S. B. Kim., “An Experimental Study to the Desensitization of Media Viol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5), 187-219, 2006.

김 호 경(Ho-Kyung Kim) [정회원]



- 2014년 4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lege of Mass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tudies (Ph.D)
- 2015년 5월 ~ 현재 : 한림대학교 헬스케어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New Media Psychology, Digital Healthcare

권 기 석(Ki-Seok Kwon) [정회원]



- 2010년 7월 : University of Sussex,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DPhil)
- 2013년 8월 ~ 현재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Science Communication, Social Big Data Analysis, Science Policy